

주기도문 VI. 용서를 받아 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 말씀의 배경

마태복음에서 '죄'를 '채무'의 의미로 사용한다. 위 말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을 용서(탕감) 해준 것처럼 우리의 채무(죄)를 탕감해 주소서'

용서란 어떤 개념인가? '채무'가 완전히 변제된 상태를 말한다. 채무를 탕감해주어야 하는 사람의 전적인 의지로 완전히 빚이 탕감된 상태를 말한다. '빚지고 못산다'라는 말이 있다. 채무적인 빚이나 마음의 빚이나, '빚'은 언제나 부담이다. 자유의 상태가 아니다. 해결되지 않은 미결의 상태가 바로 '빚진상태'이다. 이런 삶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행복 할 수 없다. 빚진 자는 언제나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심령이 위축되어 있다. 채무자는 언제나 채권자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이다.

2. 사람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의 '용서'를 말씀하신다. 하나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용서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용서를 말한다. 두 용서 모두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모두 '용서'가 있어야 함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렇다면 '용서'의 순서에 대해 질문해보아야 한다.

(1)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그 조건으로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타인을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2) 유대인 전통의 율법적 배경

율법의 삶이란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삶을 말한다. 율법적 삶의 특징은 '자기의와 공로'에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행위가 중요하다. 예수님 당시의 불신 유대인들은,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타인을 용서하는 일이 조건으로, 그리고 공로로 선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완성할 수 없는 구원을, 아무 조건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그 관계는 채권자의 허락없이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빚을 변제하거나 탕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채무자 스스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권한과 의지로. 채무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빚이 청산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24-35]

24 왕이 섬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27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멍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29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들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31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34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35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4)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

은혜로 먼저 빚을 탕감받은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은혜로 용서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용서'는 절대적으로 '은혜'에 속한 영역이다.

(5) 성경은 남의 잘못과 채무를 보기전에 먼저 '내 자신'을 보라고 정확히 말한다.

내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채무를, 은혜로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다.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6) 죄악된 인간의 본능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인 줄 안다.

채권자는 언제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채무자는 권리를 주장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당당하다. 그러나 성경은 권리를 주장하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너는 네 권리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아니라,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있는 채무자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한다.

3. 용서 받은 자의 삶

(1) 주기도문의 '용서'를 말씀 하신 이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말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소중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말라는 것이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아는 것이다.

(2) 존재감의 확인 -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자세와 태도

신앙은 나의 존재를 내 마음안에 크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감을 내 안에 크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은혜안에서' 만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것이 은혜이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있는 피조물의 자세이다.

(3) 사랑의 존재감은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은혜 안에서 '기도'를 통해 분명해 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승리로 이기는 일들이 나타난다. 무엇이 중요한 진짜 '가치'인지 선명하게 내 마음안에 새겨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 가치는 세상에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가치이며 진리'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 서게 된다.

(4) 내가 온전한 존재로 탕감 받게 된 가장 소중한 가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탕감 받을 수 없다. 보혈은 '전부'를 상징한다. '보혈'은 대가를 의미한다.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보혈로 씻으셨다.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눈처럼 희게 되었다.

[요한1서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103: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1:18]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5)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죄로부터의 탕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상태이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보혈의 피를 통한 죄사함이 왜 중요한가? 결국 빛진 상태, 마귀는 언제나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감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 정죄감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 '너는 계속 빛진 자이다. 너는 빛을 갠 수 없다. 너는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려 죽게될 것이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은 이제 돌아갈 곳도 돌이킬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낸다. 보혈이 선포되는 곳마다 '죄사함과 탕감'이 은혜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6)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다음 단계는 '은혜' 이다.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빛이 탕감되고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날마다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이다. 은총이 임재로 이 사람안에 머물러 있다. 은혜의 임재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 묶인 곳, 포로된 곳을 자유하게 한다. 어떤 것도 은혜의 임재가 있는 삶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한다.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은총과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 하신다. 기도 가운데 그 진리가 영의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한 곳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을 붙잡고 있는 '죄의 채무'가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조이풀 성도들이 되자.